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의 취업효과 분석*

최기성** · 안준기*** · 이혁무****

본 연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참여자의 취업 및 구직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DB 자료를 이용하였고, 2022년 12월까지 IAP(취업지원계획) 수립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7월까지의 취업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 능력(ability)과 취업 의지(will)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취업역량이 부족한 집단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근로 의지가 약한 유형에는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참여자의 취업 및 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구직자의 직업 능력과 취업 의지에 따라 구분된 참여자 유형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들의 유형 구분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참여자 유형별로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 실태 및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지원 서비스, 노동시장 이행, 코스 회귀분석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08, J64, J65, J68

*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입교수 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전화: (041) 560-1647, E-mail: ckisung92@koreatech.ac.kr

*** 교신저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전화: (043) 870-8243, E-mail: jkahn@keis.or.kr

**** 공동저자, 한국고용정보원 과장, 전화: (043) 870-8685, E-mail: lhmcan@keis.or.kr
논문투고일: 2023. 11. 30 수정일: 2023. 12. 10 게재확정일: 2023. 12. 13

I. 서론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은 1995년 고용보험 시행부터 외환위기를 전후한 1990년대 후반까지는 실업이 발생하였을 때 실업자의 구직기간 중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구직급여만을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assive Labour Market Policies: PLMPs)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실업의 장기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 다양화 등과 같은 새로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0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구직급여 지급과 함께 구직자에게는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상담과 취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는 다양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업기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s)을 도입하였다. 나아가, 다소 형식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더 진전하여 실업자가 취업하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는 보다 더 강화된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으로 확대되어 진행되었다(정병석, 2010).

국가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구성하는 수단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OECD(1993)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수단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직업알선 등의 구직 서비스(employment service)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에 맞게 노동력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이다. 세 번째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민간 부문의 임금보조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 보조(employment subsidy)이다.

그간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 감소와 같은 고용개선에 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었다. 먼저, Layard, Nickell, and Jackman(1991), Jackman, Pissarides, and Savouri(1990), Nickell(1997), Estevao(2007), 노용환(2017), 강철희·김교성·김영범(2001), 김형기(2008) 등은 OECD 국가 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투입한 재정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Calmfors(1993), Skedinger(1994), Calmfors and Skedinger(1995), Regner(1997), 정병석(2010), 채구목(2011), 고석남(2016) 등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로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참여가 실업자의 실직에 따른 복지 및 소득 손실을 감소시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약화시켜 실업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Konle-Seidl(2009)은 구직자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나 직업훈련 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상호 책임과 의무를 정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기대한 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고용 문제 해결에 여러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는 실업자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하나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제약받게 되는 이른바 속박 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실업률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사중손실 효과(deadweight loss effect)로 인해 실업률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구직 서비스 프로그램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촉진시키지만, 대부분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함으로써 재실업을 유발하여 장기적인 면에서 구직 서비스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 등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고용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강화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2022)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50만 9,000명의 국민이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하였고, 전년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 수준인 42만 3,000명(약 1.2조 원)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요건심사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해당 제도가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2022년에도 약 60만 명(약 1.5조 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등으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취업지원 등의 고용 서비스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 확대 및 개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이어 제Ⅱ절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취업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절에서 이용 자료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제Ⅳ절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과 구직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로짓 모형과 KM곡선 및 콕스 회귀분석 등의 계량모형으로 분석한다. 제Ⅴ절에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국민취업지원제도¹⁾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크게 3가지 운영 방향을 갖는다. 먼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구직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것이다. 만약,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https://www.kua.go.kr>)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한 것임.

〈표 1〉 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I유형				II유형		
	요건 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 활동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 지원	구직촉 진수당	○			×	
		취업활 동 비용	×			○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소개.

이 소멸되게 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들 중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다음으로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정 계층에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16개 유형이 존재한다.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

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취업지원 서비스는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지원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제공해 준다. 소득지원은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을 지원한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만 4,000원)을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위와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의무와 책임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를 지닌다. 만약,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하고,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재참여 제한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참여자와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상황, 취업 능력 및 의욕 수준을 확인하고,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등을 실시한 후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된다.

이렇게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II유형 참여자는 취업 의욕과 능력을 높이고,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취업 의욕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은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등이 제공된다.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 취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참여자의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아이돌봄 서비스, 소상공인 용자 등의 복지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I유형 참여자는 월 1회 이상 직업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직자 맞춤형 정보 제공, 모의면접 지원, 직무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의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상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는 큰 틀에서 이전 시행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서비스 내용을 유지하되, 참여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일 경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은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서는 참여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대부분 직업훈련과 연계되어, 취업 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 능력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에서 참여자들이 일을 체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통해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직무능력이 향상되어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 경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2. 취업지원 서비스의 취업효과 관련 국내 선행 연구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취업지원 서비스의 취업효과를 직접적으로 실증분석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취업성공 패키지와 공통점이 많아 취업성공 패키지의 취업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대신 살펴보겠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의 상담 및 알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 직업훈련을 통해 근로역량을 강화하는 구직자 개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의 사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금재호, 2016; 류기락, 2012; 황덕순 외, 2010). 이에 2010년부터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시작되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참여자의 취업 욕구진단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방위적 취업 활동 지원체계이다(류기락, 2012; 전병유 외, 2010; 류장수 외, 2011).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도입된 이래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해당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전병유 외(2012)는 취업성공 패키지 DB와 고용보험 DB 자료를 연계하여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신청했지만 비선정자) 간의 취업 성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사업의 취업 성과는 신청 시부터 약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양(+)으로 변하며, 사업 참가자들의 취업확률은 신청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약 62%로 비교 대상인 미참여자들의 취업확률인 54%보다 8%p 더 높았다면서, 해당 사업이 6개월 이내 취업 성과에 부정적이거나 유의하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장기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을 취업 지원경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진로·경로설정 단계에서 심층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1단계)한 후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중도탈락했거나 취업한 '1단계 종료형', 두 번째는 1단계 후 직업훈련, 디딤돌 일자리, 집단 상담, 단기 취업특강, 창업지원, 집단 상담 등의 어느 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2단계 종료형(1→2단계)', 세 번째는 1단계 후 고용센터나 민간위탁기관의 알선, 동행면접, 클리닉 서비스를 받은 '3단계 알선형(1→3단계)', 마지막 네 번째는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모두를 밟은 '2-3단계형(1→2→3단계)'으로 구분하였다.

참여자 취업확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특성들을 통제한 후 취업지원 경로별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종료형에 비해 3단계 알선형은 13.2%p, 2-3단계 연계형은 6.9%p 취업확률이 높으며, 2단계 종료형은 1단계 종료형에 비해 취업확률이 4.6%p 낮았다. 연구자들은 1, 2단계에서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3단계의 집중적인 취업알선과 결합하여 제공할 때 취업 성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근거로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받은 지원 프로그램별로는 단기취업특강과 3단계 알선 프로그램은 장기에서 취업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반면, 집단 상담이나 직업훈련은 장기에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나아가 참여자의 취업 능력과 의지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분한 4개 집단 간에도 취업확률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였는데, 능고의고(취업 능력 높고 의지 높음), 능고의저, 능저의고, 능저의저 순으로 취업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취업확률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의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영역을 분석한 김혜원(2013)의 연구는 단순 구직활동의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집단 상담, 집중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할 때 취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정영현·임희정(2013)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집단과 도중에 중단한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이 중단한 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외(2016)는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의 추진 실태를 과정 평가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한 결과, 상당수 청년 재학생에게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은 최적의 프로그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그 이유를 대학 재학생의 경우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역량이 높거나 눈높이가 달라 취업성공 패키지나 공공고용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필요한 개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2015년과 2016년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미치는 요인을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이병희 외(201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졸 이상 미취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취업률이 높으며, 집단 상담은 취업률을 높이는 반면, 실업자 훈련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호(2020)는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수준과 직장 만족도에서는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직무역량이 부족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이들은 비참여자보다 취업 의지가 높은 상태여서 취업 상담과 알선 등의 지원활동이 취업을 촉진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신이 되었던 취업성공 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칭이 바뀌면서 일부 프로그램이 보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의 취업 성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이용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취업지원 행정DB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국민취업지원 참여자들의 행정 관리를 위해 구축한 자료로 일반적인 연구 목적의 데이터와는 차이를 가진다. 이에 세밀한 통제는 한계를 가지며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민취업지원 행정DB는 주로 구직자의 유형, IAP 시작 및 종료,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소득지원 금액 및 유형, 취업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IAP 시작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취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2023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실증분석 대상은 IAP 시작 기준일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인 구직자를 기준으로 2023년 7월 31일까지의 취업 여부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IAP를 수립하게 되면 상담 등을 통해 구직자의 유형을 구분한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향후 취업지원 서비스의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의 흐름을 바탕으로 기초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구직자의 취업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구직기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콕스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어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구직기간에 대한 분석방법론인 콕스 회귀분석 방법론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구직활동 시작 이후 취업 또는 실업이라는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time interval)은 여러 가지 인자(factors)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시간 단위로 측정하기보다는 중도절단(censored)의 개념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용하는 방법론이 Kaplan-Meier Method이다. Kaplan-Meier Method는 1958년 Kaplan과 Meier에 의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관찰된 생존 시간을 크기순으로 순서대로 나열하여 계산되며, 사건(event)이 관측된 시점마다 생존 확률을 산출한다. 우리의 모형에서는 IAP 수립 이후 노동시장 이행까지의 기간이 생존 시간이 된다.

기간은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중도 절단된(censored) 유형의 경우 -구직자가 취업한 경우를 사건(event)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3년 7월 말

기준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이탈한 경우 중도 절단되었다고 판단함- 변수를 0으로 처리하였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1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Kaplan-Meier method의 경우에 있어 각각의 카테고리를 나눈 후 노동시장 이행기간에 대하여 단편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각 속성에 대한 시간 간격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취업지원 서비스의 속성이나 기간에 따른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변수의 집합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다중회귀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다중회귀는 중도 절단된 관측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대한 시간을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콕스 회귀(Cox regression) 모형이다. 우리는 노동시장 이행기간(구직기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콕스 회귀분석의 위험률 모형을 이용하였다.

콕스 모형에서 사용되는 해저드 모형은 관측기간 동안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우측 절단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치성을 가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저드 함수 $h(t)$ 는 어떤 사건(T)이 시점 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이 이 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이다. 본 추정에서는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다가 취업으로 순간적인 이행을 하는 경우가 해저드에 해당된다.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t | T > t)}{\Delta t} \quad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콕스 회귀모형은 식 (1)을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X 라는 설명변수 벡터를 가지는 관측치의 t 기에서의 해저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t) = h_0(t) \exp(X'\beta) \quad (2)$$

이때 $h_0(t)$ 는 설명변수와는 독립적인 t 기에서의 기본 해저드(baseline hazard)를 나타낸다. 따라서 콕스 모형에서는 매기에서의 해저드 변화가 기본 해저드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변수 x 는 그 크기와 β 의 값에 따라 단순히 기본 해저드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콕스 모형을 통해 기본 해저드의 분

포에 대한 함수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즉 분포의 정확한 형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설명변수가 해저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IAP 수립 시점부터 취업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취업지원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험률 모형은 생존율 모형과 구분이 되는데, 그 차이는 분포를 고려하느냐 유무에 있다. 전자는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와이블(weibul), 지수(exponential), 로그정규(Log-normal) 등의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가운데 분포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위험률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사건(본 연구에서는 취업)이 발생할 위험률에 대한 모형으로 추정 계수값이 양의 값을 가질수록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IV. 분석 결과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현황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규모를 보면 IAP(취업활동계획) 시작 일자가 존재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총 약 88만 명가량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의 규모는 약 69만 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7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선발형(청년)이 30만 명, 요건심사형이 28만 2,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약 50만 1,000명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약 37만 8,000명으로 전체의 43.0%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약 47만 명으로 전체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30대가 15.5%를 차지하고 있고, 40대가 10.7%, 50대가 9.8%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에 맞게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학력별로 보면 대졸 학력이 42만 5,000명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하고 있고, 고졸의 학력이 31.0%인 27만 3,000명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I유형 선발형(청년)의 경우 전문대나

〈표 2〉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참여 유형		성		연령						학력						합계	
		여	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고졸 이하	고졸	전문대 재학	4년제대 재학	대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졸
I 유형	선발형 (비경활)	72,267 (65.5)	38,022 (34.5)	699 (0.6)	1,641 (1.5)	22,151 (20.1)	33,562 (30.4)	33,244 (30.1)	18,992 (17.2)	2,883 (2.6)	63,446 (57.5)	1,259 (1.1)	1,030 (0.9)	37,574 (34.1)	168 (0.2)	3,645 (3.3)	110,289 (100.0)
	선발형 (청년)	155,186 (51.7)	144,788 (48.3)	25,489 (8.5)	240,005 (80.0)	34,473 (11.5)	- (0.0)	- (0.0)	- (0.0)	10,904 (3.6)	58,539 (19.5)	22,766 (7.6)	49,598 (16.5)	146,928 (49.0)	2,177 (0.7)	8,983 (3.0)	299,974 (100.0)
	요건 심사형	162,366 (57.6)	119,496 (42.4)	3,406 (1.2)	131,275 (46.6)	55,049 (19.5)	40,521 (14.4)	34,027 (12.1)	17,584 (6.2)	8,180 (2.9)	93,812 (33.3)	6,817 (2.4)	13,159 (4.7)	147,375 (52.3)	1,096 (0.4)	11,134 (4.0)	281,862 (100.0)
II 유형	저소득층	16,335 (59.1)	11,291 (40.9)	758 (2.7)	9,597 (34.7)	4,501 (16.3)	4,862 (17.6)	4,511 (16.3)	3,397 (12.3)	996 (3.6)	12,170 (44.1)	555 (2.0)	848 (3.1)	11,808 (42.7)	113 (0.4)	1,112 (4.0)	27,626 (100.0)
	중장년	23,490 (71.5)	9,365 (28.5)	- (0.0)	- (0.0)	7,915 (24.1)	9,343 (28.4)	9,058 (27.6)	6,536 (19.9)	444 (1.4)	15,443 (47.0)	293 (0.9)	173 (0.5)	15,004 (45.7)	51 (0.2)	1,433 (4.4)	32,855 (100.0)
	청년	53,104 (53.6)	46,027 (46.4)	7,815 (7.9)	84,108 (84.8)	7,201 (7.3)	- (0.0)	- (0.0)	- (0.0)	2,733 (2.8)	13,960 (14.1)	8,192 (8.3)	14,644 (14.8)	56,231 (56.7)	434 (0.4)	2,926 (3.0)	99,131 (100.0)
	특정계층	17,933 (65.7)	9,356 (34.3)	1,510 (5.5)	5,410 (19.8)	4,691 (17.2)	6,179 (22.6)	5,654 (20.7)	3,845 (14.1)	144 (0.5)	15,416 (56.5)	205 (0.8)	341 (1.2)	10,150 (37.2)	41 (0.2)	990 (3.6)	27,289 (100.0)
전체		500,681 (57.0)	378,345 (43.0)	39,677 (4.5)	472,036 (53.7)	135,981 (15.5)	94,467 (10.7)	86,494 (9.8)	50,354 (5.7)	26,284 (3.0)	272,786 (31.0)	40,087 (4.6)	79,793 (9.1)	425,070 (48.4)	4,080 (0.5)	30,223 (3.4)	879,026 (100.0)

주: IAP 시작 일자(IAP_BGDE) 기준(2021. 1. 1~2023. 7. 31).
 자료: 고용보험 DB 원자료.

4년제 대학교 재학 비율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고졸을 초과하는 학력이 전체의 76.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 참여자 유형별 취업지원 서비스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IAP(취업활동계획)가 수립되면 직업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담자(구직자)의 유형이 구분²⁾되고, 이는 IAP 수립 이후 진행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의 대략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내담자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취업에 대한 능력(ability)과 의지(will)가 각각 높고(high) 낮은가(low)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HWL(능고의저)로 구직자의 유형이 구분되었다면 이 구직자는 취업과 관련하여 능력은 있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가운데 집단 상담이나 심층취업상담 등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알선 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IAP 수립 당시의 유형 구분은 프로그램 참여 전체 기간에 걸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 ALWH(능저의고)의 경우에는 우선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시키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참여 유형별로 이러한 구직자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보면 능력은 낮으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능저의고(ALWH) 유형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능력도 높고 일할 의지도 높은 능고의고(AHWH) 형태가 25.5%를 차지하였다. 그 외 능저의저형은 9.2%, 능고의저형은 6.7%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자 유형 구분에 따라 이들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차이가 실제 있는지 살펴보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구직활동 지원, 취업 동기부여, 직업 능력 개발, 취업 장애요인 제거, 취업지원금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구직활동 지원 중 구직기술지원 서비스(이력서 작성 지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대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작성방법 등에

2) 유형 구분 시 IAP(취업활동계획) 및 상담 결과 등이 반영되지만 최종 결정은 직업상담사가 하기 때문에 해당 변수에는 직업상담사의 성향이 일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대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며, 동행 면접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 지원자의 장단점과 사정을 잘 아는 취업상담사가 면접장에 함께 동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다음으로 동기부여와 관련된 취업지원 서비스는 집단 상담, 심층 상담이 이에 해당된다. 모두 취업 관련 동기부여와 관련된 상담 유형으로 집단 상담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더 강점을 둔다면, 심층 상담은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심리나 진로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상담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 측면에 보다 강점을 두고 있다.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된 세부 서비스 유형은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 취업 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상 세부 서비스 유형 가운데 직업훈련 참여를 직업 능력 개발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취업지원 서비스 가운데 취업 장애요인 제거에는 채무조정, 아이 돌봄 서비스, 소상공인용자 등의 서비스와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현재 자료 내에서는 취업 장애요인이 있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후속 조치 여부는 파악이 어려워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부문은 다양한 지원금이 있으나 전체 지원금 총액과 더불어 취업 독려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수당 지급 여부를 취업지원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부터 살펴보자. 구직활동 지원의 경우 이력서 작성 지원이나 면접 지원 등의 서비스로 취업의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가장 많이 지원받는 대상이 능저의고 유형으로 8.5%가량이 구직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동행면접 비율도 능저의고, 능저의저 유형에서 2.0%가량으로 '능고' 유형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기부여와 관련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살펴보자. 동기부여와 관련된 항목들은 집단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거나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심층 상담 등이 주를 이룬다. 즉,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취업 의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구분 유형 가운데 집단 상담의 참여 비중이 높은 집단은 능저의저(11.5%), 능고의저(11.2%)로 취업에 대한 의지가 낮은 집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심층 상담 또한 능저의저(3.2%), 능고의저(3.1%)의 순으로 참여 비중이 높다. 하지만, 취업 의지가 낮은 참여자 유형에서조차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참여비율이 3~10% 남짓으로 높지 않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직업 능력 개발은 직업훈련 참여 등을 통해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참여 비중이 높은 집단을 살펴보면 능저의고(61.4%), 능저의저(53.0%)의 순으로 취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정된 집단에서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 능력이 높다고 판단된 능고 유형 참여자에서도 직업훈련 참여율이 44~4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유형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취업 장애요인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취업 장애요인이 있는지 여

〈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별 취업지원 서비스 현황

(단위: 비중, 원, 명, %)

취업지원 서비스	세부 지원 서비스 유형	참여자 구분 유형			
		AHWH (능고의고)	AHWL (능고의저)	ALWH (능저의고)	ALWL (능저의저)
구직활동	구직기술지원 서비스 (이력서 지원)	0,069	0,065	0,085	0,064
	동행 면접	0,001	0,001	0,002	0,002
동기부여	집단 상담(근로의욕 고취)	0,089	0,112	0,096	0,115
	심층 상담(심리상담, 진로상담)	0,027	0,031	0,029	0,032
	집단 상담*심층 상담 연계 참여	0,003	0,005	0,003	0,005
직업 능력 개발	직업 훈련 참여	0,440	0,475	0,614	0,530
취업 장애 요인 제거 노력	취업 장애요인 파악	0,015	0,015	0,014	0,015
지원금	개별 총지원금 규모(평균)	2,783,458	2,809,029	2,786,632	2,758,019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0,833	0,846	0,768	0,824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0,274	0,207	0,186	0,137
	조기취업수당 지급 여부	0,071	0,042	0,032	0,019
전체		149,700 (25,5)	38,991 (6,7)	343,562 (58,6)	53,713 (9,2)

주: 1) 참여자는 IAP 시작 일자(IAP_BGDE) 기준(2021. 1. 1~2022. 12. 31).

2) 현재 과정을 진행 중이거나 중도탈락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고용보험 DB 원자료.

부로 판단하고 있는데 유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대략 1.5%가량의 참여자들이 취업 장애요인이 있다고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취업 지원금의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비율을 보면 능고의거(84.6%)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성공수당이나 조기취업수당의 경우에는 취업의 의지보다는 취업을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동됨에 따라 능고의고형에서 각각 27.4%,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IAP 수립 시에 구직자들의 능력과 취업 의지로 구분된 참여자 유형에 따라 실제 제공된 취업지원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참여자 유형별 취업 성과(취업과 구직기간 단축)를 저해하는 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살펴보자. 노동시장 이행 성과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 가운데, 2023년 7월 31일 현재 과정을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 ‘취업’ 또는 ‘기간만료’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동시장 이행 성과는 크게 취업 여부 및 구직기간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취업률은 64.7%로 참여자 가운데 2/3가량은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유형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능고의고’형으로 해당 유형 참여자 가운데 72.4%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능저의고가 64.4%, 능고의거가 60.2%, 능저의거가 47.7%의 취업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단위: 비중, 개월)

노동시장 이행 성과	성과 지표	참여자 구분 유형				전체
		AHWH (능고의고)	AHWL (능고의거)	ALWH (능저의고)	ALWL (능저의거)	
취업	취업률	0.724	0.602	0.644	0.477	0.647
구직기간	미취업자 포함 구직기간	10.5	13.1	12.6	15.6	12.4
	취업자의 구직기간	5.2	5.9	6.6	6.7	6.2

주: 1) 참여자는 IAP 시작 일자(IAP_BGDE) 기준(2021. 1. 1~2022. 12. 31).

2) 현재 과정을 진행 중이거나 중도탈락은 분석에서 제외.

3) 취업일은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미취업 시 기준일까지의 기간 산출.

자료: 고용보험 DB 원자료.

구직기간의 경우에는 집단 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도 절단(right censored)을 고려한 기간과 취업이라는 사건(event)이 있는 사람들만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도절단을 고려한 구직기간은 2023년 7월 31일 기준 12.4개월로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의 경우 미취업자들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취업자만 대상으로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약 6.2개월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 구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취업자 포함 구직기간이 경우 앞선 취업률의 순서와 동일하게 능고의고가 10.5개월로 가장 짧고, 능저의저가 15.6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어 취업에 대한 의지 여부가 구직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취업자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능고의고가 5.2개월, 능고의저가 5.9개월, 능저의고 6.6개월, 능저의저가 6.7개월로 취업역량에 따라 구직기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취업 여부에는 ‘의지’가, 취업까지의 구직기간에는 ‘능력’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자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만약 IAP 수립 이후 참여자의 유형 구분이 타당성 있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론적으로 이들의 취업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표 4>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보면 참여자 구분 유형별로 취업률 및 구직기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른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취업 여부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추정값은 모형 비교 및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즈비(odds ratio)가 아닌 한계효과(marginal effect(dy/dx))로 산출하였다.

우선 전체 모형을 통해 인구학적 배경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취업에 있어 성별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0대를 기준으로 20대(0.103), 30대(0.033), 10대(0.067), 40대(0.015), 50대(0.014)로 20대를 정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확률도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학력자를 정점으로 학력이 낮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졸업’ 학력자보다 ‘재학’ 학력자의 취업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졸업 후 실업 경험의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순희·안준기(2010)의 연구 결과와 같이 장시간의 구직기간이 이들의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

불어 구직자들의 일자리 눈높이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재학생의 경우에는 졸업까지의 기간이 있어 졸업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임시적 일자리라도 취업지원금 등을 수혜받기 위해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참여 유형별로 보면 I 유형이 II 유형에 비해 취업할 확률은 13.4%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취업지원 서비스가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인 구직기술 지원 서비스 및 동행면접 서비스 모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한계효과는 0.033과 0.031로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각각 3.3%, 3.1%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집단 상담 및 심층 상담을 살펴보았는데, 두 프로그램 모두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이전 연구들을 보면, 전병유(2012) 연구에서도 집단 상담이나 직업훈련은 장기적인 시점에서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이병희 외(2016)에서 지적하였듯이 상당수 청년 재학생에게 현재의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적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공공고용 서비스가 불필요한 개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프로그램의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전 사업에서의 문제점들이 사업의 개편 과정에서 현재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하고 일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혜원(2013)에서 제시하였던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이 취업확률을 높인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교호항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인 직업훈련을 보면 한계효과는 0.008로 직업훈련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0.8%가량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장애요인 제거 관련 변수의 한계효과 또한 0.006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자료에서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취업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이 프로그램의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자. 취업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직 지원금의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즉, 구

〈표 5〉 취업지원 서비스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한계효과 분석)

변수 구분		로짓 후 한계효과(dy/dx)				
		AHWH	AHWL	ALWH	ALWL	전체
성별	기준(남성)	0,000	0,004	0,002*	-0,010**	0,000
연령 기준(60대)	10대	0,040***	0,313***	0,074***	0,214***	0,067***
	20대	0,061***	0,268***	0,115***	0,256***	0,103***
	30대	0,020***	0,101***	0,037***	0,090***	0,033***
	40대	0,008***	0,027*	0,019***	0,044***	0,015***
	50대	0,007***	0,028*	0,019***	0,033***	0,014***
학력 기준 (고졸 미만)	고졸	0,004*	-0,002	0,001	0,027**	0,002
	전문대재	0,019***	0,066***	0,045***	0,129***	0,038***
	4년제대재	0,018***	0,056***	0,032***	0,095***	0,029***
	대졸	0,012***	0,048***	0,024***	0,080***	0,021***
	대학원재	0,013***	-0,008	0,038***	0,023	0,026***
	대학원졸	0,010***	0,045**	0,020***	0,082***	0,018***
참여 유형	기준(II 유형)	0,149***	0,271***	0,119***	0,252***	0,134***
대상 유형 기준 (농지의지)	농고의고	-	-	-	-	0,053***
	농고의저	-	-	-	-	0,025***
	농지의고	-	-	-	-	0,041***
구직활동	구직기술 지원 서비스(이력서 지원)	0,017***	0,123***	0,036***	0,101***	0,033***
	동행 면접 여부	0,011*	0,177**	0,037***	0,077	0,031***
동기부여	집단 상담(근로의욕 고취)	-0,003**	-0,006	-0,017***	-0,017**	-0,012***
	심층 상담(심리상담, 진로상담)	-0,003	-0,045**	-0,015***	-0,043***	-0,013***
	집단 상담*심층 상담 연계 참여	-0,008	-0,015	0,002	-0,017	-0,003
직업 능력 개발	직업훈련 참여	0,006***	0,038***	0,006***	0,022***	0,008***
취업 장애 요인 제거	취업 장애요인 파악	0,007**	-0,009	0,010***	-0,011	0,006***
지원금	총지원금 규모(로그값)	-0,026***	-0,079***	0,014***	0,012**	-0,002***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0,054***	-0,313***	-0,122***	-0,393***	-0,105***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0,406***	-	0,445***	-	0,457***
	조기취업수당 지급 여부	-	-	-	-	0,134***
Pseudo R2		0,2476	0,0620	0,2002	0,0564	0,221
N		137,963	29,975	331,169	45,609	558,806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DB 원자료.

직기간에 지급받는 금액이기에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가 지속될수록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총 지원금 규모의 한계효과 값은 -0.002 로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또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미취업 상태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다만 취업성공수당 및 조기취업수당 지급 여부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취업성공수당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 기간 내에만 수급받을 수 있고, 조기취업수당 또한 특정 기간 이내에 취업을 해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취업이나 지연 취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소라 판단할 수 있다.

유형별 효과를 보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보면, 대체적으로 ‘의제’ 유형에서는 구직기술 지원 서비스나 동행면접 등의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가 ‘의고’ 유형에 비해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약 3배에서 6배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 유형에 따라 취업확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기준 변수인 능저의제에 비해 모든 유형에서 취업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고, 능고의고(0.053), 능저의고(0.041), 능고의제(0.025)의 순을 보이고 있다. 앞선 기초 분석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자 유형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기에 이론적으로는 구직자 유형별로 취업확률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취업확률을 높이고는 있으나 대상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 방향성이나 유의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들은 취업에 있어 IAP 수립 초기에 구분하였던 대상 유형의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의 유형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유형 구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들의 유형 구분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들의 구직기간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이들의 개인적 특성 및 참여 유형 등이 통제된 상태에서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과연 구직기간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 참여자 유형별 취업지원 서비스가 구직기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AP 수립 이후 구직자를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것 또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IAP 수립 이후 노동시장 이행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존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계층(strata)별로 IAP 수립 이후의 구직기간을 살펴본 후, 비례적 위험(hazard) 모형인 콕스 회귀모형(Cox Regression)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여기서 계층이란 참여 유형 및 참여자 유형 등의 집단을 의미하고 있다.

먼저 참여자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기간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은 참여자 유형에 따라 IAP 수립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Kaplan-Meier Curve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림 1>의 세로축은 생존확률 값을 의미하고, 가로축은 생존기간(월)을 의미한다. <그림 1>를 살펴보면 참여 유형별로는 II유형 참여자가 I유형 참여자에 비해 미취업 상태에서 단기간에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구분 유형에 따라서는 능고의고의 유형이 다른 그룹에 비해 IAP 수립 이후 미취업 기간이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능고의저, 능저의고, 능저의저의 순으로 취업확률과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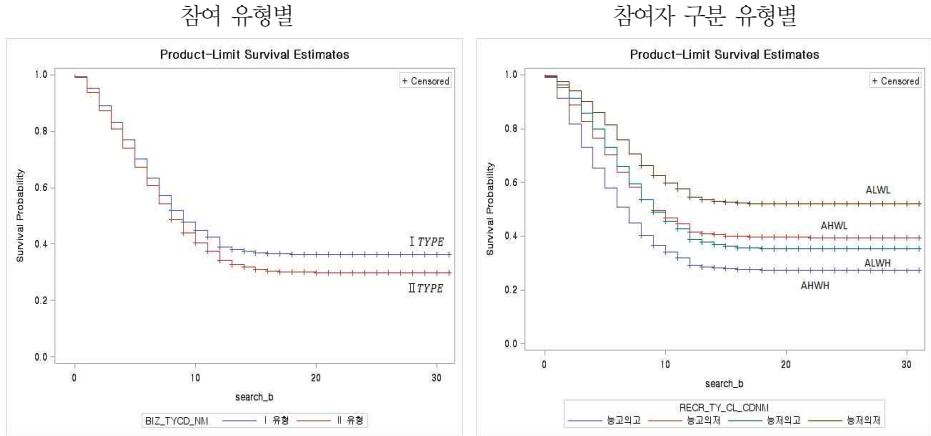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층별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차이 검정, 즉 Log-Rank 검정, 윌콕슨 검정 및 -2Log(LR) 검정 결과 p-value가 모두 1% 내의 유의수준을 만족하므로 계층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참여자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직기간 또한 인적 속성이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영향을 받는 요소이므로, 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취업지원 서비스가 구직기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중 생존분석 방법인 콕스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6>은 콕스 회귀분석의 위험률 모형에 대한 결과로 앞선 취업확률 모형과 추정계수의 방향값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구학적 배경이 구직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구직기간이 감소할 확

〈그림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유형별 구직기간 분석(KM curve)

(단위: 개월, 확률)



계층 간 동질성 검정				계층 간 동질성 검정			
검정방법	카이스퀘어 값	자유도	Pr>Chi-Square	검정방법	카이스퀘어 값	자유도	Pr>Chi-Square
Log-Rank	1,427,039	1	<.0001	Log-Rank	15,455,26	3	<.0001
Wilcoxon	1,056,801	1	<.0001	Wilcoxon	18,958,06	3	<.0001
-2Log(LR)	2,806,6	1	<.0001	-2Log(LR)	16,946,03	3	<.0001

자료: 고용보험 DB 원자료.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낮은 연령일수록 구직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의 변환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를 제외 하고는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한계효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재학일 경우 졸업 상태인 경우보다 구직 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 경험의 낙인효과 등이 국민취업제도 참여 자들의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가 구직기간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 앞선 취업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구직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동기부여 활동의 경우에는 오히려 구직기간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직업 능력 개발의 경우에는 구직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정의한 구직기간이 IAP 수립 이후부터 취업일까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전체 구직기간에

〈표 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의 구직기간 효과분석(콕스 회귀분석)

변수 구분		Cox Regression Parameter Estimate				
		AHWH	AHWL	ALWH	ALWL	전체
성별	기준(남성)	0.018***	0.034***	0.050***	0.031**	0.038***
연령 기준 (60대)	10대	0.867***	0.803***	0.707***	0.531***	0.724***
	20대	0.631***	0.612***	0.628***	0.644***	0.625***
	30대	0.356***	0.294***	0.296***	0.261***	0.307***
	40대	0.182***	0.133***	0.164***	0.150***	0.158***
	50대	0.164***	0.126***	0.179***	0.130***	0.158***
학력 기준 (고졸 미만)	고졸	-0.007	-0.040	-0.036***	0.071**	-0.035***
	전문대재	0.192***	0.133***	0.292***	0.281***	0.255***
	4년제대재	0.133***	0.080*	0.160***	0.181***	0.142***
	대졸	0.103***	0.086**	0.132***	0.212***	0.122***
	대학원재	0.080**	0.002	0.203***	0.039	0.128***
	대학원졸	0.098***	0.068	0.131***	0.221***	0.120***
참여 유형	기준(Ⅱ 유형)	1.539***	1.184***	0.985***	0.998***	1.099***
대상 유형 기준 (능지의지)	농고의고	-	-	-	-	0.486***
	농고의지	-	-	-	-	0.254***
	능지의고	-	-	-	-	0.296***
구직활동	구직기술 지원 서비스(이력서 지원)	0.182***	0.240***	0.161***	0.153***	0.173***
	동행 면접 여부	0.160**	0.361**	0.164***	0.236**	0.182***
동기부여	집단 상담(근로의욕 고취)	-0.122***	-0.076***	-0.137***	-0.077***	-0.125***
	심층 상담(심리상담, 진로상담)	-0.073***	-0.126***	-0.125***	-0.123***	-0.115***
	집단 상담*심층 상담 연계 참여	-0.058	-0.034	0.012	-0.038	-0.013
직업 능력 개발	직업 훈련 참여	-0.127***	-0.084***	-0.134***	-0.075***	-0.123***
취업 장애요인 제거	취업 장애요인 파악	0.058**	-0.006	0.069***	0.014	0.044***
지원금	총지원금 규모(로그값)	-0.613***	-0.459***	-0.182***	-0.147***	-0.297***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1.242***	-0.920***	-1.141***	-1.047***	-1.133***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1.178***	1.365***	1.140***	1.503***	1.183***
	조기취업수당 지급 여부	1.692***	1.950***	2.279***	2.392***	2.044***
귀부가설 검증 통계량	Likelihood Ratio	55,721.7***	13,090.1***	95,896.1***	14,673.8***	191,574.6***
	Score	82,327.7***	22,556.0***	176,269.6***	30,289.5***	326,385.5***
	Wald	66,315.0***	16,490.1***	124,774.9***	20,022.8***	239,238.8***
N		148,655	38,815	342,118	53,497	583,145

주: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DB 원자료.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해석될 수 있다.

취업 장애요인 파악 또한 구직기간 단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총지원금 규모 및 구직촉진수당 등은 프로그램 구조상의 영향 등으로 음의 효과를 보이며, 취업성공수당 및 조기취업수당의 경우에는 구직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효과를 보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보면, 대체적으로 능고의저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구직기술 지원 서비스나 동행면접 서비스가 구직기간을 낮추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취업 의지가 높은 ‘의고’ 집단의 경우 취업 장애요인 제거 노력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 유형에 따라 취업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기준 변수인 능저의저에 비해 모든 유형에서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고, 능고의고(0.486), 능저의고(0.254), 능고의저(0.296)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취업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한계효과 분석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각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 방향성이나 유의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직기간에 있어 IAP 수립 초기에 구분하였던 대상 유형의 구분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유형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유형 구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들의 유형 구분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21년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사업이 변경된 대국민 취업지원 서비스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전까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이루어졌으나 개편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향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고용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

는가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 확대 및 개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자 특성을 보면 2021년 해당 제도로 개편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요 대상은 20대 청년층이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참여 비중이 남성보다 높으며 대졸 학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유형 I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사업 참여자들은 IAP 수립 이후 참여자 유형이 구분되는데 직업 능력은 낮으나 취업 의지가 높은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58.6%)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역량도 높고 일할 의지가 높은 비중(25.5%)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참여자 유형 구분과 관련이 높는데 취업역량이 부족한 집단에 대해서는 취업 심층 상담이나 훈련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근로 의지가 약한 집단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 동기부여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의 과정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 의지가 낮은 참여자 유형에서조차 상담 프로그램 참여비율이 3~10%로 높지 않고, 직업 능력이 높은 참여자에서도 직업훈련 참여율이 44~4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취업 및 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구직활동 지원과 취업 장애요인 제거 서비스의 경우 취업 및 구직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기부여 활동의 경우에는 취업 및 구직기간에 부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인 전병유(2012)나 이병희 외(2016)의 연구 결과와 일부 유사한 결과로 해당 사업의 참여자 특성과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괴리가 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이병희 외(2016)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소득으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동기부여 활동이 참여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지원금 수급을 위한 '시간보냄'이나 상담 과정에서 취업 관련 눈높이 불일치 재확인 등으로 취업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대상 유형에 따른 취업 및 구직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IAP 수립 당시의 대상 유형 구분 효과는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IAP 초기 단계에서 유형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유형 구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들의 유형 구분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결과라 해석된다. 따라서 대상 유형별로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 실태 및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참여자의 취업과 구직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최초로 행정DB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참여자의 직업 능력과 취업 의지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향하기에 선형적으로는 유형별로 취업확률과 구직기간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을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만을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제도 참여가 취업 및 구직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와 같은 연구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³⁾ 또한 취업과 구직기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의 순수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충분한 통제가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실업부조의 성격이 일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에 적극적인 구직자들과 실업부조적 성격의 지원을 받기 위해 참여한 사람인가 여부에 따라서도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여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보다 풍부한 자료와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3) 성과평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구직 자료 및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행정 자료의 특성상 분석할 수 있는 변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기선택편의(self selection bias)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 등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현재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 강순희·안준기,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0, 201~231.
- 강철희·김교성·김영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실업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2001, 7~39.
- 고석남, “확장된 매칭함수를 이용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거시경제적 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2호, 2016, 261~293.
- 고용노동부,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히 정착시키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보도자료, 2022. 1. 5.
- 금재호, “시행주체에 따른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34권 제2호, 2016, 121~151.
- 김덕호,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20, 29~63.
- 김형기,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영국·독일·덴마크 3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3호, 2008, 93~124.
- 김혜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해야 효과가 있는가?,”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2013, 87~131.
- 노용환, “고용장려금사업의 사중손실 효과 추정,” 『한국경제연구』 제35권 제3호, 2017, 73~102.
- 류기락,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 서비스와 맞춤형 사회 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한국사회정책』 제19집 제3호, 2012, 149~183.
- 류장수·김종한·박성익·조장식·오민홍,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대상자 유형별 취업지원 강화 방안』, 고용노동부, 2011.
- 이병희·김혜원·길현중·오민홍, 『취업성공 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7.
- 이병희·길현중·김혜원·이영수·오민홍,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성과 평가분석 및 개편방안 마련』, 한국노동연구원, 2016.
- 전병유·이병희·황덕순·윤자영,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성과 분석』, 고용노동부, 2010.

- 정병석, “한국 노동시장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155~185.
- 정영현 · 임희정, “취업성공 패키지 효과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제7권 제1호, 2013, 1~28.
- 채구묵,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3호, 2011, 187~211.
- 황덕순 · 노대명 · 김재진,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 Calmfors, Lars, “Lesson from the Macroeconomic Experience of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 1993, 25~72.
- _____, “Active Labou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rucial Design Features,” *OECD Economic Studies*, 22(Spring), 1994, 7~47.
- Calmfors, Lars and Per Skedinger, “Does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crease Employment?: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Some Empirical Evidence from Sweden,” *Stockholm,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Seminar Paper No. 590, Stockholm University, 1995.
- Carling, Kenneth and Katarina Richardson, “The Relative Efficiency of Labor Market Programs: Swedish Experience from the 1990’s,” *Labour Economics*, 11(3), 2004, 335~354.
- Couch, Kenneth A., “New Evidence on the Long-term Effects of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4), 380~388.
- Estevao, Marcello, “Labor Policies to Raise Employment,” *IMF Staff Papers*, 54(1), 2007, 113~138.
- Gueron, Judith M., “Work and Welfare: Lessons on Employment Program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1), 1990, 79~98.
- Jackman, Richard, “Unemployment Policies,” *Economic Policy*, 5(October), Christopher Pissarides and Savvas Savouri, 1990, 449~490.
- Konle-Seidl, R., “Erfassung von Arbeitslosigkei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Notwendige Anpassung oder unzulässige Tricks?,” *IAB-Kurzbericht*, 2009, 1~8.

- Layard, Richard, "Sweden's Road Back to Full Employment,"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18, 1997, 99~118.
- Layard, Richard, Stephen Nickell, and Richard Jackman, *Unemploym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Labor Market*,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Nickell, Stephen,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Rigidities: Europe versus North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3), 1997, 55~74.
- OECD,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ssessing Macroeconomic and Microeconomic Effects," in *OECD Employment Outlook*, edited by OECD, Paris: OECD, 1993, 39~80.
- Regner, H., "Training at the Job and Training for a New Job: Two Swedish Studies,"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Dissertation Series*, 29, Stockholm: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97.
- Skedinger, Per, "Sweden's Labour Market Policy: A Remedy for Unemployment?," *Vocational Training European Journal*, 2, 1994, 25~29.

[Abstract]

Study on the Effect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ervice on Employment

Kisung Choi* · Junki Ahn** · Hyuckmoo Lee***

This study analyzed how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ffects participants' employment and job search period. For the analysis, we used administrative database data from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2021, and are checking the employment performance until July 2023 for those who established an IAP (Employment Assistance Plan) by December 2022. The main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provides customized services according to job ability and willingness to work. For example, vocational training is supported for groups lacking employment capacity, and counseling services for motivation are provided to those with a weak will to work.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customize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for each type are not sufficiently provided and that improvement is needed.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s employment support service on the participants' employment and job search period, it was found that the types of participants classified according to job seekers' job ability and willingness to work had a significant impact after the end of the program. This is interpreted to mean that employment support services are not having enough of an impact to offset the effect of categorizing these types, and that there is a need to identify and improve the operation status and obstacles in order to improve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provided.

Keywords: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employment success package, employment support service, labor market transition, Cox regression analysis

JEL Classification: J08, J64, J65, J68

* First Autho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Professor, Tel: +82-41-560-1647, E-mail: ckisung92@koreatech.ac.kr

** Corresponding Author,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Fellow, Tel: +82-43-870-8243, E-mail: jkahn@keis.or.kr

*** Coauthor,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Section Chief, Tel: +82-43-870-8685, E-mail: lhmcan@keis.or.kr

